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보도자료

보도

2020. 3. 25.(수) 조간

배포

2020. 3. 24.(화)

담당부서

금융투자검사국

오세천 팀장(02-3145-7040), 윤상진 선임(02-3145-7042)

제 목 :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

◆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**비대면계좌**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

- 점검 결과 다수 증권사에 대해 **광고 표현 및 제비용·금리 산정 기준**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,
- 투자자는 비대면계좌 이용시 **상품별 장단점**을 면밀히 비교한 뒤 **합리적으로 의사결정** 하실 것을 당부 드림

1 | 점검 개요

- 증권사의 비대면계좌*는 '16.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, 수수료·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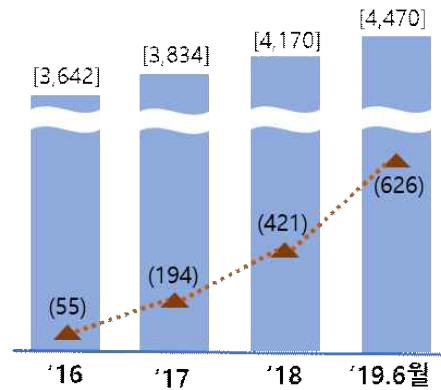
* 증권사·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·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('19.6월~11월)

비대면계좌 규모 추이(점검대상 22사 기준)

(단위 : 만건)

구분	전체 계좌수(A)	비대면 계좌수(B)	비대면계좌 비중(B/A)
'16년말	3,642	55	1.5%
'17년말	3,834	194	5.0%
'18년말	4,170	421	10.1%
'19.6월말	4,470	626	14.0%



2 | 주요 점검 결과*

*세부 점검 결과는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가. 거래수수료

- (광고 표현)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'거래수수료 무료'라고 표시 하였으나, 유관기관제비용*1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*2을 별도 부과

*1 (한국거래소) 거래·청산결제수수료 등 (예탁결제원) 증권사·예탁수수료 (금융투자협회) 협회비

*2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.0038~0.0066% 수준

기존 비대면계좌 (최저)수수료율 vs. 무료 이벤트 계좌 제비용률 비교(예시)

(각사 점검시점 기준)

(단위 : %)

구분	A사	B사	C사	D사
기존 비대면계좌 수수료율	0.010	0.015	0.014	0.014
무료 이벤트 계좌 제비용률	0.0052	0.0066	0.0047	0.0038

➔ '유관기관제비용 제외' 문구를 부기하였으나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, 실제 거래비용이 '0원'이 아닌 경우 광고상 '무료'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

□ **(제비용 산정기준)**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·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

➔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*하여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

* 3사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관기관제비용률을 既인하

□ **(사전안내)**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·약관·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

➔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·약관·홈페이지 등에 명시하여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

나. 신용공여이자율

□ **(이자율 차등)** 일부*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

* 점검대상 22사 중 9사(13사는 비대면계좌에 일반계좌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)

일반 vs. 비대면계좌 적용 이자율 비교(예시)

(19.6월말 기준)

(단위 : %, %p)

구분	ㄱ사	ㄴ사	ㄷ사	ㄹ사
일반계좌 이자율(A)*	7.5	8.4	9.3	7.9
비대면계좌 이자율(B)*	11.0	9.8	10.6	8.9
차이(B-A)	3.5	1.4	1.3	1.0

* 90일 초과 이용시 기준이며, 회사별 고객등급 등에 따라 최종적용 이자율은 변동가능

➔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,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,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

- (사전안내)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동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·표시하지 않음

➔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, 광고·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·표시하여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

3 | 기대효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

-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
 -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,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아울러,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·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 드림

※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

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무료!

[신규/휴면고객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, 혜택 타인승계 불가]

기간

2020년 1월 1일 (수) ~ 6월 30일 (화)

대상

신규고객: 주민번호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규고객
 휴면고객: 2017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26일 기간 내
 국내주식거래가 없으면서 2019년 12월 26일
 삼성증권 보유계좌 총 잔고 10만원 이하 고객
 * 2017년 1월 ~ 2019년 12월까지의 신규고객은 제외

거래매체

온라인 (mPOP(모바일앱), HTS/DTS, 홈페이지)

혜택

이벤트 기간 중 개설된 최초 이종합(평생무료 비대면)계좌에서
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(유관기관 제비용 제외)
 * 휴면고객도 이벤트 기간 중 새로 이종합(평생무료 비대면)계좌를 개설하셔야 혜택이 제공됩니다.

대상종목

국내주식 (ELW, 해외주식, 선물/옵션 제외)

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무료
 유관기관제비용 제외

평생무료

나무의 시그니처 혜택 받고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.

- 참여대상** 2019.07.01(월) ~ 2020.01.31(금) 동안 나무 비대면 계좌개설을 완료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
- 적용매체** 나무 온라인 (홈, HTS, 홈페이지)
- 적용상품** 거래소, 코스닥,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(ETF, ELW, ETN포함)

대상여부 조회 비대면 계좌 개설

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이번 생은 평생무료

(유관기관 제비용 제외)

대상

- 최초 신규고객**
 실명확인번호 기준 미래에셋대우(구 미래에셋증권 포함)의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 고객
- 주식 휴면고객**
 2018년 6월 1일 ~ 2019년 5월 24일까지 최근 1년간 국내 주식 무거래 고객 중
 2019년 5월 24일 기준 국내 주식 잔고 10만원 이하인 고객

기간

2019년 6월 1일 (토) ~ 2019년 8월 30일 (금)

조건

다이렉트 비대면 "주식+CMA+개인연금" 또는 "주식+CMA" 또는 "주식종합" 개설 시

혜택

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무료 (유관기관 제비용 제외)

※ 이벤트 기간 중 최초 개설된 1개의 주식거래 계좌에 한하여 수수료 무료 이벤트 적용 (1인 1계좌)

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면

10년 무료

온라인 주식수수료

(유관기관 제비용 제외)
 10년 수수료 무료 대상이 아닌 경우 자가 수수료 반영

- 기간** 2018. 7. 1 ~ 2018. 9. 30
- 대상** - 신규고객: 주민번호 기준 최초 위탁신규 고객 (최초 개설된 1계좌 적용)
 - 장기미거래고객: 최근 12개월 주식매매 무거래이면서 위탁자산 10만원 미만 고객 (전월 말 기준)
- 조건**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 APP(Start able)을 통한 계좌개설
- 종목** 주식(거래소, 코스닥, 코넥스, ELW, ETF, ETN, K-OTC포함)/해외주식, 금현물 제외)
- 매체** HTS(H+able, ACE, 스마트, Speed, Classic만 해당), 홈페이지, MTS(M+able, Smart able만 해당)
 ※ Smart M, able, Tab 등 제휴어플은 제외
- 혜택** 수수료: 증권계좌 개설일로부터 주식매매 온라인 수수료 10년무료(유관기관 제비용 제외)